

활쏘기를 통해 본 몽골 신화상의 후흐데이 메르겐의 형상과 성격*

이 안 나
(상명대학교)

1. 들어가기

몽골 신화에서 ‘메르겐’은 활쏘기에 탁월한 명궁수를 이른다. 부랴트 샤머니즘에서 후흐데이 메르겐은 북방의 77우두머리 신으로 언급된다.¹⁾ 일반적으로 신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텡게르(텡그리), 보르항²⁾ 등이 있는데, 이들은 보통 격절적인 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에 반해 메르겐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그러한 성격을 보여주는 보다 실제적인 유형의 인물로 묘사되는데, 본 논의에서 살펴볼 명궁수 후흐데이 메르겐은 신적인 존재이지만 사냥꾼이라는 인간적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노스롭 플라이(Northrop Frye)는 원형비평에서 신화와 원형적인 상징에는 세 가지 구조가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구조는 순수한 신화로서 일반적으로 신과 악마의 이야기, 두 번째는 로맨스적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경향, 즉 인

* 본 연구는 한국몽골학회 2014년도 제34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1) С.Дулам, *Монгол домог зүйн дүр*, УБ, 2009, p.90.

2) 무속과 관련해 좀 더 많은 명칭이 있고, 이들 신이 불교적인 명칭으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몽골 신화상의 일반적인 신의 명칭으로 국한하기로 한다.

간의 경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화적 패턴을 떠오르게 하는 경향의 이야기, 세 번째는 사실주의 경향을 갖는 이야기라고 했다.³⁾ 후호데이 메르겐의 이야기는 이 가운데 두 번째 구조에 속하는 인간 삶과 맞물려 있는 로맨스적 신화라 할 수 있다. “로맨스라는 것은 신화를 인간적인 방향으로 전위시키지만, ‘사실주의’와는 대조적으로 내용을 이상화된 방향으로 관습화하는 경향을 의미한다.”⁴⁾ 다시 말해, 이야기의 형식은 인간 삶의 형태를 반영하지만, 그 내용에는 이상화된 근원적이고 우주적 패턴을 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후호데이 메르겐⁵⁾ 신화는 샤머니즘을 근간으로 하며, 그 내용은 몽골인들의 이상화된 신화적 패턴을 반영한다.

기본적으로 몽골 신화상에 메르겐은 천체와 관련하여 명사수이자 사냥꾼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메르겐이 천체와 관련되는 것은 활쏘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활쏘기를 통해 일월성신을 조정하거나 별 생성에 관여한다. 몽골 신화상의 대표적인 메르겐으로는 후호데이 메르겐과 에르히 메르겐을 들 수 있다. 에르히 메르겐은 태양, 달, 플레이아데스 등의 일월성신 조정에 관여한다. 그는 여러 개 나타난 이들 천체를 모두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맹세한 대로 타르박⁶⁾이 되어 땅굴 즉 지하에 들어가 살게 되는 비극적 영웅으로 등장한다. 이에 반해 후호데이 메르겐은 오리온자리, 시리우스 별, 북극성 더 나가 북두칠성 등의 천체 형성에 관련되며, 천둥·번개신, 풍요신, 창조신, 인류 구원자 등의 매우 포괄적인 형상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3) 노스롭 프라이, 『비평의 해부』, 임철규 옮김, 한길사, 2009, pp.276~277.

4) 위의 책, p.271.

5) 후호데이 메르겐은 몽골 여러 종족의 신화에 널리 퍼져있는 신성으로 “할하에서는 후호데이 메르겐(Хөхдэй мэргэн), 부랴트인들은 후호데이 메르겐 또는 후호르데이 메르겐(Хүхүүдэй мэргэн, Хүхүрдэй мэргэн), 발라간 부랴트인들은 후후수(Хөхөсө мэргэн), 두르워드에서는 쿠쿠테 메르겐(Көкдээ мэргэн), 오랑하이인들은 쿠쿠테이 메르겐(Көкүдэй мэргэн), 다르하드인들은 쿠분데이 메르겐(Көвөндэй мэргэн), 알타이인들은 쿠굴데이 메르겐(Көгөлдэй мэргэн), 테레우트인들은 쿠굴데이-마티르(Көгөлдэй-Матыр), 투바인들은 쿠옥그데이 메르겐(Көөгүтэй мэргэн), 통구스인들은 쿠수겐 메르겐(Күсүгэн мэргэн) 등으로 부른다.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여러 지역에서 회자되는 것은 후호데이 메르겐이 몽골 신화상에 깊은 연원을 가진 근원적인 성격을 띤 형상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С.Дулам(2009), 앞의 책, p.152)

6) 몽골 초원시대 땅굴 속에서 주로 사는 마멋의 한 종류.

역할이 활쏘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몽골에서는 별뿔별이 떨어지는 것을 ‘오드 하르와흐’(од харвах)라 한다. 이것을 직역하면 ‘별을 쏘다’는 뜻인데, 별뿔별이 떨어지는 것을 ‘쏘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에서 별과 화살을 등가적으로 여겼던 고대인들의 관념을 엿볼 수 있다. 또 그 이면에는 화살이 어떤 주술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천계의 자연현상과 모종의 신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내포한다.

시베리아 만주-통구스 신화에도 활쏘기가 일월조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데, 두 개 혹은 세 개의 해가 떠 사람들이 더위로 시달리자 한 용감한 사내가 활을 쏘아 해를 떨어뜨려 사람들을 구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⁷⁾ 해와 달을 없앨 뿐 아니라 사슴 등의 동물이 훔쳐간 해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⁸⁾ 그 가운데 에벤키 족의 신화에는 사냥꾼과 사냥개가 해를 훔쳐간 암수 사슴의 뒤를 쫓아 하늘에 올라가 모두 별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⁹⁾ 한국의 경우 제주도 창세신화 <천지왕 본풀이>¹⁰⁾와 경기도 창세신화 <시루말>¹¹⁾에 활쏘기가 일월조정과 관련되어 나타나지만 별의 생성에 관여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한국의 몽골 연구로 활쏘기와 관련하여 에르히 메르겐 신화에 관한 이평래의 논의가 있었다.¹²⁾ 이 논문에서는 에르히 메르겐 신화의 문화적 함의를 논하는 가운데 활과 화살이 갖는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몽골의 에르히 메르겐 신화는 한국에서처럼 창세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고대 몽골인들의 실생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이 신화가 수렵시대 활과 화살 승배를 배경으로 생겨났으며, 중국과 시베리아 지역과는 달리 활쏘기가 해와 달에 한정되지 않고 그 대상이 별로 확대되는 데 차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벤키 족 신화에는 별이 되는 화소가

7) 광진석, 『시베리아 만주-통구스족 신화』, 제이앤씨, 2009(pp.138~140, 148~151, 154 참조)

8) 위의 책, pp.208~210.

9) 위의 책, pp.207~210.

10)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p.236.

11) 서대석,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7, p.65.

12) 이평래, 「‘에르히 메르겐’ 신화의 문화적 함의」, 『동북아 활쏘기 신화의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10, pp.124~164.

나타나고 있어 활쏘기와 별의 관련성이 몽골 신화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라 보기는 어렵다.

반면 후호데이 메르겐에 관련하여 단독 연구는 거의 없고, 대개 신화를 논하는 가운데 후호데이 메르겐을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스.돌람의 <몽골 신화론>은 신화에 대한 이론 체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 후호데이 메르겐에 대해 전 몽골 신화에 천상과 지상의 명궁수 영웅으로 천체 신화의 주동인물이요, 지상과 천상 어디서나 사건을 발전시키는 우주적 규모의 영웅이라고 언급했다.¹³⁾ 이 논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리온자리에 대해 논하는 가운데 천둥·번개신, 인류 구원자, 북극성과 관련된 후호데이 메르겐의 형상을 더불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리온자리와 관련된 천체 형성이 후호데이 메르겐의 주된 기능임을 시사해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후호데이 메르겐을 활쏘기와 관련하여 한 가지 논점으로 언급하지 않고, 천상과 지상에서의 후호데이 메르겐의 전천후적인 역할을 전반적으로 논했다.

일월성신을 조정하다가 약속을 완수하지 못해 타르박이 된 에르히 메르겐과 달리 후호데이 메르겐은 몽골 신화에 매우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몽골 신화상에 명궁수 후호데이 메르겐의 기능이 매우 생산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고대에는 활을 잘 쏘는 것[]은 단순히 기예에 능하다는 의미를 넘어 신적인 능력의 한 표식이 되었다.¹⁴⁾ 몽골인들은 고대로부터 활과 화살을 신앙시해 왔으며, 이들이 사기()와 부정한 것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다. 집안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문에 활과 화살을 걸어두어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금했으며, 아이의 요람 띠에 작은 활과 세 개 은 화살을 달아주었다. 또 암소의 젖이 부으면 화살촉으로 찌르며 민간요법을 행하고, 가축의 젖 담은 통 손잡이에 활과 화살을 달아 부정한 기운을 쫓았다.¹⁵⁾ 몽골 서부

13) С.Дулам(2009), 위의 책, p.154.

14) 김선자는 활쏘기신화는 샤먼의례에 기초한 것이며, 활쏘기는 샤먼영웅이 신적능력을 보이는 것이라 했다(김선자, 「중국 소수민족 활쏘기 신화와 의례를 통해서 본 ‘샤먼영웅’」, 『동북아 활쏘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10, pp.79~88참조)

15) Д.Дашбадрах, “Монголчуудын нум сум эрхэмлэх ёс”, *Угсаатан судлал*,

오랑하이 지역에서는 지금도 주술적인 의례의 한 형태로 활쏘기 의례를 행하며,¹⁶⁾ 국가 친신제 때 창공을 향해 활을 쏘는 것은 모두 사기()와 부정한 것을 쫓고 풍요를 부르는 벽사진경의 의례의 하나로 행해졌다.

활을 쏘아 질병과 재난, 자연재해로부터 부족을 구했던 메르겐은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 ‘명궁수’ 이외에 ‘헌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살아있을 때는 지역의 군장이요 사면영웅으로, 죽어서는 별 또는 신이 되어 공동체의 삶을 가호하는 수호신으로 숭앙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⁷⁾ 후호데이 메르겐 역시 별이 되어 종족을 수호하는 조상신이자 수호신이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활쏘기를 중심으로 몽골 신화상에 나타난 후호데이 메르겐의 형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중심 역할과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후호데이 메르겐의 형상과 성격

1. 사냥꾼, 명궁수

1) 오리온자리, 시리우스 : 사슴과 늑대 토템

신화를 통해 보면 몽골의 고대인들은 천상과 지상을 차원이 다른 이계로

УБ, 1997, p.56.

16) 몽골 서부 알타이 오랑하이 종족들 사이에서는 주로 겨울에 활쏘기 의례를 행하는데, 궁수들을 모셔와 활을 쏘는 의례를 베푸는 가정은 그 해 재난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쏘기 의례 때 외치는 사람들의 오하이(уухай) 소리는 모든 부정한 것을 쫓는다고 믿는다.(М.Ганболд, *Алтайн урианхайн сурын харваа*, Ховд, 2006, p.42) ‘오하이’는 신을 부르거나 복을 부르는 소리 또는 신을 불러 인간의 사기를 고무시키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17) 만주족의 사슴의 수호여신 좌뤄마마는 무거운 활도 당길 수 있는 명사수이며 사슴의 언어에도 능통한 소녀였다고 한다. 그녀는 사냥꾼에 의해 상처를 입은 사슴들을 치료해 주었고, 또 사슴들이 구해온 약초와 녹각으로 마을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 잔인한 우스인이 마을에 침입해 왔을 때 좌뤄마마는 백두산에 가서 녹조신()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며, 녹조신은 그녀의 머리에 한 쌍의 뿔이 돌아 오르게 하여 우스인들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 부락과 사슴을 보호하는 이 여신을 사람들은 좌뤄마마라고 불렀다고 한다.(김선자, 앞의 논문, p.97) 좌뤄마마는 살아서는 사면영웅으로 마을과 사슴을 수호하는 존재요, 죽어서는 신으로 추앙된 한 예라 할 수 있다.

보지 않고, 두 공간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냥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늘에서 사냥과 목축을 하기도 하는 현실적인 공간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천상은 신들의 영역이자 “지상에 존재하는 동물들과 한 쌍을 이루는 천상의 짝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인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¹⁸⁾ 신성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몽골 무속에서 천상은 인간세계의 또 다른 영역으로 묘사된다.

몽골 천체 신화는 대개 지상의 인간이나 동물들이 천상에 올라가 별이 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후흐데이 메르겐은 사슴 사냥을 하다가 사냥감과 사냥개, 독수리 등과 함께 천상으로 올라가 시리우스, 오리온자리의 별이 되는데, 옴스 아이막에서 채록한 신화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오랜 옛날 후흐데이 메르겐은 흰 솜 같은 백마를 타고, 흰 활과 화살통을 매고, 아사르 바사르 두 마리 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갔다. 그때 세 마리 새끼를 데리고 가던 세 마리 암사슴을 만나 그 뒤를 추격해 가다가 모두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줄지어 있는 세 개 별을 세 마리 암사슴이라고 하고, 그 아래 있는 경사진 어두운 세 개 별은 세 마리 새끼사슴이라고 한다.

저녁에 환히 반짝이는 별은 세 마리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 추격해 가는 후흐데이 메르겐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하늘의 흰 사냥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¹⁹⁾

위의 이야기는 오리온별자리가 생겨난 내력담을 말해주는데, 오리온자리를 암사슴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몽골 천문학에서 오리온자리를 ‘암사슴 자리’(Маралын одны ордон)라고 하고, 오리온자리의 중심이 되는 세 개 벨트별을 ‘세 마리 사슴’(Гурван марал)이라고 이른다. 몽골인들

18) 니콜라스 J. 손더스, 『동물의 영혼』, 강미경 옮김, 창해, 2002, p.46.

19) Д.Цэрэнсодном(1989), 앞의 책, p.49. 후흐데이 메르겐을 ‘흰 사냥꾼’이라고 한 것은 몽골 무속적 관점에서 보면 그가 선신()의 영역인 서쪽 55백천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신성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고대로부터 오리온자리나 오리온 벨트를 사슴과 관련해 관념해 온 것은 사슴 신앙이 별자리 신앙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별이 되는 사슴들은 보통의 사슴이 아니라 ‘하늘 사슴’ 또는 ‘우주 사슴’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²⁰⁾

또 다른 이본에는 후호데이 메르겐이 탕던 말이나 활도 별이 되었다고 언급된다.

후호데이 메르겐이 세 마리 암사슴을 쫓으며 가다가 말과 사냥개, 새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세 마리 암사슴 중 가운데 사슴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세 마리 사슴 가까이 보이는 별 하나는 독수리, 그보다 아래 있는 별은 말, 나란히 경사져 있는 세 개 별은 활, 그 가까이 있는 별을 후호데이 메르겐이라고 말한다.²¹⁾

이처럼 그가 쏜 화살, 사냥개, 독수리 등이 모두 이들 별자리의 하나를 차지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후호데이 메르겐은 오리온자리에서 가까운 큰개자리에 속한 시리우스별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별이라고 하는 시리우스별은 고대 문명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있게 하는 별로 추앙되었으며, 매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별이기도 하다. 몽골인들은 이 시리우스별을 ‘후호데이 메르겐’이라고 부른다. 시리우스별은 보통 천량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늘의 늑대 별’이란 뜻이다. 몽골인들도 이 별을 ‘늑대별’이라고 부른다.

오리온자리와 시리우스별이 사슴과 늑대로 묘사되는 것은 몽골인들의 사슴과 늑대 토LEM 신앙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몽골인들은 예로부터 오리온자리와 시리우스별을 신앙해왔으며, 이들 별들이 다른 별보다 몽골인을 좀 더 특별히 가호를 해준다고 여겼다. 몽골 무속에서 ‘세 마리 암사슴’이라 불리는 오리온자리 벨트를 칭기스 칸의 선조이자 하늘의 운명으로 태어난 부르테 촌(Бөртэ чоно)의 아내 고 마랄(Гоо марал)과 관련지어 보는데,

20) 통구스족의 한 갈래인 에벡크 족의 신화에는 세 명의 사냥꾼이 서로 자신의 사냥 실력을 다투다가 숲에서 암사슴과 그 새끼 흔적을 발견하고 추격해 가다가 모두 하늘로 올라가 북두칠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그 사슴은 ‘호그렌’이라는 우주사슴으로 묘사된다.(곽진석(2009), 앞의 책, pp.207~208)

21) 위의 책, p.50.

사슴은 고대 몽골인들의 어느 한 씨족 혹은 부족의 수호신 내지 토템의 연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²⁾고 본다. 몽골의 무덤에 세워진 사슴돌 역시 몽골인의 토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몽골인들은 “사슴돌의 신령(웅고드) 가운데 하나는 칭기스 칸의 원선조모인 고아 마랄(‘아름다운 암사슴’의 뜻)의 영혼이라고 믿는다.”²³⁾ 이처럼 원조모 신앙과 사슴신앙, 오리온자리 별 신앙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리온별자리와 짝이 되는 시리우스별에 관련하여 『몽골비사』에는 칭기스 칸의 선조모인 알란 고아에 관련된 신이한 전설이 전한다. 알란 고아에게는 남편 도보 메르겐이 살아있을 때 낳은 부구누테이와 벨구누테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은 뒤에 또 다시 보고 하타기, 보고토 살지, 보동차르 몽학이라는 세 아들을 낳는다. 어느 날 알란 고아가 없을 때 부구누테이와 벨구누테이가 이 세 동생의 출생에 대해 의심스러운 말을 몰래 주고받자, 알란 고아가 그것을 알고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밤마다 밝은 누런 사람이 게르의 천창과 문미 사이로 들어와, 내 배를 만지자 그 빛이 배에 스며들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경계에 누런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나갔지.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그 표정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의 아들들이다.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과
어찌 비교해서 말을 하느냐, 너희들은.
만인의 왕들이 되면
범인들은 그 때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²⁴⁾

위 기사에서 알란 고아는 밝은 누런 사람, 누런 개를 천상적인 빛의 존재,

22) О.Пүрэв, *Монгол бөөгийн шашны нэр томъёоны тайлбар толь*, УБ, 2003, pp63-64.

Д.Цэрэнсодном, “Монгол домог туулийн гарал үүслийн асуудалд”, *Аман зохиол судлал* 14, УБ, 1987, p.160.

23) 위의 책, p.50.

24) Ш.Бира бусад,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УБ, 2005, p.11.

신성으로 인식하고, 세 아들을 하늘의 아들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속 학자 오.푸렘은 밝은 누런 사람은 알랑고아의 죽은 남편 도보 메르겐(Добу мэргэн)의 영혼이라고 보지만,²⁵⁾ ‘누런 개’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누런 개는 늑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시리우스 별인 후호데이 메르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리우스 별의 라틴명은 ‘dog star’(개별)인데, 늑대는 개과에 속하는 동물로, 때로 개로 표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통 몽골인들은 늑대를 그대로 부르지 않고 완곡어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 가운데 개와 관련하여 ‘야생 개’, ‘큰 입을 가진 개’, ‘푸른 개’, ‘하늘 개’ 등으로 부른다.²⁶⁾ 또 서부 알타이 지역에서는 늑대를 ‘알타이의 개’, ‘초원의 개’라고 부른다.²⁷⁾ 고대 원몽골 부족에 관한 이야기인 <에르구네 콩(홍)> 전설에 등장하는 ‘노코즈’는 개의 복수형인 ‘노호스’를 이르는데, 12~13세기 노호스 씨족은 ‘초노스’(늑대들)라고 달리 불리기도 했다.²⁸⁾ 이것은 늑대를 개와 같은 유로 인식한 결과이며, 늑대 신앙과 개 신앙이 서로 교직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신화적 맥락에서 몽골인의 늑대 신앙을 시리우스별인 천량성 후호데이 메르겐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위의 알란 고아 이야기에서 ‘누런 사람’, ‘누런 개’는 시리우스별 즉, 후호데이 메르겐 별의 정기가 현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 주몽신화에 나오는 유화의 잉태 화소와 이 전설의 유사함을 언급하는데, 빛을 통한 회임 화소는 유사하지만 유화는 태양빛이요, 알란 고아는 밤에 비치는 빛이라는 데 차이점이 있다.

몽골인들은 고대에 자신들의 조상을 지상의 동물뿐 아니라 천상의 별자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사유했으며, 특별한 동물에 대한 신앙을 별 신앙과 하나로 연결해 관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몽골인들은 천체와 인간의 삶을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천체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조상의

25) О.Пүрэв, *Монгол бөөгийн шашин*, УБ, 1999, p.131.

26) 이안나, 『몽골 민간신앙 연구』, 한국문화사, 2010, p.138.

27) М.Ганболд, *Алтайн урианхайн уламжлалт шүтлэг*, УБ, 2001, p.72.

28) А.Очир, “Монголчуудын нохос, чонос, бухас, шарайгол хэмээх овгуудын тухай”, *Сибирь болон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ний угсаатны зүй*, УБ, 2000, p.65.

영혼이 신(보르향)이 되거나 별이 되어 자신들을 가호한다고 믿었다. 조상들 가운데 여러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활과 화살을 부리는 탁월한 지도 자적 존재가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늑대, 사슴토템 신앙과 연결되고, 늑대별인 시리우스 신앙과 후호데이 메르겐이 연결됨으로써 후호데이 메르겐은 강력한 몽골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메르겐의 기본적인 성격과 함께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후호데이 메르겐의 여러 역할 가운데 별 생성 및 조상신 관념이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과도한 힘 : 제어되는 자연력

앞의 신화는 지상에서 후호데이 메르겐과 사냥개가 사슴을 추격하다가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된 것으로 묘사했다면 다른 이본에서는 후호데이 메르겐이 천상에 올라가 사슴을 사냥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오랜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 군사, 가축들이 서쪽으로 정벌을 위해 대이동을 하며 가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천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 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간 길이 밤하늘에 뚜렷이 보인다고 한다. 그 군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후호데이 메르겐 왕은 북쪽의 사냥감을 초원의 소똥만큼이나 많이 사냥하고, 남쪽의 사냥감을 가축의 부서진 똥과 흙만큼 많이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었다. 세 마리 사슴을 추격하다가 가운데 있는 사슴을 쏘아 관통한 화살이 붉게 보인다. 세 마리 사슴의 세 마리 새끼가 어미를 따라 달려가는 뒤로 후호데이 메르겐이 아사르, 바사르 두 마리 개를 데리고 추격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노인들은 후호데이 메르겐 별, 세 마리 사슴 별, 세 마리 새끼사슴 별, 아사르 바사르라는 두 마리 개 별을 가리킨다.²⁹⁾

위 이야기에서는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후호데이 메르겐은 뛰어난 명궁수이지만, 사슴만은 활을 쏘아 모두 죽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예르히 메르겐 역시 태양과 별이 많이 나타나는 괴이한 자연현상을 모두 쏘아 해

29) Д.Цэрэнсодном(1989), 앞의 책, p73.

결하려 하지만, 이들은 명궁수라는 이름처럼 백발백중의 신기를 보이지는 못한다. 후호데이 메르겐은 세 마리 사슴을 다 쏘지 못하고, 에르히 메르겐 역시 스스로 약속한 대로 여러 개 나타난 해나 별을 다 없애지는 못한다. 발라간 부라트 이본을 보면 후호데이 메르겐이 한 마리의 사슴도 쏘지 못하고, 사슴과 화살이 모두 별이 되는 것으로 언급된다.

후후수 메르겐이라는 대단히 긴장한 용사 명궁수가 있었다. 그가 한 번은 사냥을 하기 위해 가다가 세 마리 사슴을 보고 그 뒤를 쫓았다고 한다. 막 가까이 가려할 때 그 세 마리 사슴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와 동시에 뒤에서 활을 쏘았다. 그리고 그 세 마리 사슴은 별이 되었고, 후후수 메르겐이 쏜 화살은 그 아래쪽에 또 세 개의 별이 되었다.³⁰⁾

후후수 메르겐은 후호데이 메르겐을 말한다. 이 신화에서는 메르겐이 한 마리의 사슴도 맞추지 못하고 화살이 모두 빗나간 채 별이 된 것으로 묘사된다. 이들 사슴은 보통의 사슴이 아니라 하늘의 사슴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출중한 메르겐이라도 쉽게 맞출 수 없었던 것이지만,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신기에 가까운 활쏘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후호데이 메르겐이 몽골 서부 자호칭 종족의 신화에는 사슴 가족을 죽인 것을 후회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오리온자리에 관련하여 후호데이 메르겐에게 쫓김을 당한 사슴은 실상은 명궁수 후호데이 메르겐의 자만스런 성격을 꺾기 위해 천상에서 의도적으로 보낸 존재이다.³¹⁾ 몽골 신화에서는 활쏘기에 자만한 후호데이 메르겐이 만나게 되는 사슴들은 대개 그의 자만을 꺾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사슴들이라고 말한다.

자호칭 지역의 신화를 보면, 후호데이 메르겐의 군사가 뿔이 스물네 가지로 난 4살배기 붉은 사슴을 총으로 쏘자, 사슴이 쓰러질 듯 안간힘을 쓰면서 말한다. “대왕님, 이리로 오십시오. 제가 대왕님께 세 가지 말씀을 해드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후호데이 메르겐은 자신이 사람의 말을 아는 동물을

30) 위의 책, p.51.

31) 위의 책, p.305.

죽인 죄 많은 사냥꾼이라고 하며, 조금한 마음에 검을 빼내 사슴의 뒷목 급소를 찌르려고 하자 사슴이 “죽여야 한다면 죽이십시오. 잠시 이리로 와서 제가 하는 세 마디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라고 한다. 그리고 사슴은 말한다. 자신의 머리를 자기 부모의 머리와 함께 차스틴차강 산 정상에 가져다놓을 것과 자신의 등가죽을 잘라내 300명의 군사에게 구두를 만들어주고, 남은 것은 33명의 용사에게 구두와 옷을 만들어주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다. 그리고 간과 장막을 굼벵 산을 씌워 놓으라고 부탁하고 죽는다. 후호데이 메르겐은 사슴이 이른 대로 하고 돌아간다. 그 후 후호데이 메르겐은 3년 동안 매년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마지막 해 후호데이 메르겐이 그곳에 가니 세 개 사슴 머리가 3색 무지개를 띄우며 하늘로 올라갔다. 후호데이 메르겐은 4살배기 사슴과 그 어미, 아비 사슴을 죽인 것을 크게 후회하며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 자신의 99길 푸른 화살을 세 도막으로 꺾어 부러뜨리고 바위 위에서 죽으려고 몸을 날리자 세 개 사슴 머리가 세 방향에서 후호데이 메르겐을 받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³²⁾

이 신화에서 사슴은 매우 신성한 존재로 자신을 비롯해 자기 어미, 아버지를 죽인 후호데이 메르겐의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몽골인들은 사슴 가운데 특히 “24가지로 뿔이 난 사슴을 야생동물의 왕이라고 하여 죽이지 않는데”³³⁾ 후호데이 메르겐은 이러한 신성한 사슴을 죽인 것에 대해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다.

알타이 텔렌기드 이본에서는 자만스런 성격으로 인해 천상의 징계를 받는 명궁수에 대해 언급한다. 그 대단한 명궁수는 원래 고아였다고 한다. 그는 한 마리의 동물도 놓치지 않고 활을 쏘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명궁수에게 “당신은 하늘의 뜻으로 모든 동물을 죽이는 거요?”라고 묻자 “무슨 하늘 말이요? 난 활을 쏘고자 하여 쏘는 것이요.”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을 가서 세 마리 암사슴을 만나 사슴을 추격하지만 잡지 못하고, 말도 힘이 빠지고 사냥개도 매우 지치고 만다. 그때 세 마리 사슴이 하늘로 뛰어 오르자 후호데이 메르겐은 그 뒤를 따라 말과 사냥개와 함께 하

32) Б.Катуу, Э.Пүрэвжав, *Захчин ардын аман зохиол*, УБ, 2004, pp.107~108.

33) Ж.Санжид, *Гаднаас гал гуйдаггүй*, УБ, 1998, p.37.

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 이후 모두 별이 되었다고 한다.³⁴⁾

이와 같이 후호데이 메르겐이 자신의 활 쏘는 실력을 자만하여 죽여서는 안 되는 신성한 하늘 동물을 죽이고, 야생동물들을 마구 사냥하는 이러한 과도한 행위는 에르히 메르겐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는 7개 해가 나타나 세상이 가뭄으로 타들어가자 자신의 활 쏘는 능력을 자만해 그 7개 해를 다 쏘아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한다. 다른 신화에는 하늘에 3개 해와 3개의 달이 뜨자 에르히 메르겐이 해와 달을 모두 쏘아 세상을 어둡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부처님이 어둡게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물을 먹지 않고 건초도 먹지 않는 땅굴 속의 타르박이 되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나 부처님이 해와 달을 모두 쏘지 못하도록 해와 달 앞에 금강저와 요령을 두어 해와 달을 각각 하나씩 남게 한다.³⁵⁾ 에르히 메르겐은 자의든 타의든 대개 하늘에 나타난 해와 달, 별을 모두 없애지는 못함으로써 자신의 약속대로 타르박이 되고 만다.

이처럼 명궁수는 지상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냥꾼이요, 사면영웅이지만, 별의 생성이나 천체의 질서를 조절하는 주인공인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여 오히려 천체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자만이 과도한 메르겐들은 일종의 부정적인 자연의 힘[]과 동일시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자연현상이 과도해졌을 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어되어야 할 힘으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자만이 넘치는 후호데이 메르겐이나 에르히 메르겐을 자연력으로 본 것은 몽골 신화적 관념에서 보면 그리 낯선 것은 아니다. 몽골 신화에는 인신()적 존재가 자연 그 자체로 관념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가지 예로 다음의 지진에 관한 신화를 들 수 있다.

문수보살이 거북이가 되어 지구를 등에 지고, 팔을 거드랑이에 끼고 배를 대고 누웠다고 한다. 그 거북이가 등을 이리저리 움직일 때 지구의 땅이 흔들거린다고 한다.³⁶⁾

34) С.Дулам(2009), 앞의 책, p.152.

35) Д.Цэрэнсодном(1989), 앞의 책, pp.48~49.

36) 위의 책, p.43.

여기서 문수보살은 몽골 신성이 불교의 보살로 대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북이는 원래 문수보살의 화현()이요, 거북은 지구를 우의적으로 이룬 것으로, 지진을 문수보살이 몸을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시베리아, 만주 퉁구스 지역 종족들의 신화 속에도 인신적 존재뿐 아니라 신성한 동물의 행위 역시 자연 또는 자연의 힘 그 자체로 여겨졌던 경우를 볼 수 있다. 에벡크 족의 신화에는 낮과 밤이 교체되는 것을 매일 저녁 수사슴이 해를 훑치면 새벽에 사냥꾼이자 용사인 마니가 수사슴으로부터 해를 찾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날마다의 반복으로 묘사한다.³⁷⁾

후호데이 메르겐이 사슴을 죽여 자살을 하려 했던 것이나 사슴을 사냥하지 못하고 그 뒤를 쫓아 하늘에 올라간 것이나 에르히 메르겐이 타르박이 되는 것 등은 모두 자연의 과도한 힘이 제어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자연이 어느 한쪽의 힘이 강해지게 될 때 스스로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제어되면서 천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북극성 : 수호신

후호데이 메르겐은 오리온자리나 시리우스 이외 북극성 생성과도 관련된다.

북극성은 후호데이 메르겐이 원정을 갈 때 타는 두 마리 담황색 말을 묶은 말뚝이라고 한다. 그 두 마리 담황색 말을 일곱 노인이 지키고, 밤에 두 마리 말을 따라 황금 말뚝을 도는 것이라고 한다. 그 일곱 노인을 일곱 보르항(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³⁸⁾

위의 할하 이본에 나오는 ‘일곱 노인’은 ‘북두칠성’을, ‘황금 말뚝’은 ‘북극성’을 이른다. 황금 말뚝 주위를 일곱 보르항이 돈다는 것은 북두칠성이 북극성 주위를 도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몽골인들은 말 묶는 기둥에 조상신이 거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말뚝에 후호데이 메르겐의 말이 묶여 있다는 것은 한편 말뚝이 후호데이 메르겐이 거하는 처소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부랴트 이본에는 황금 말뚝은 호르마스트 천신(33천의 지고신)의 말을 묶는 기둥으로

37) 광진석, 『시베리아 만주-퉁구스족 신화』, 제이앤씨, 2009, p.210.

38) Д.Цэрэнсодном(1989), 앞의 책, p.73.

거기에 호르마스트 천신의 담황색 암수 두 마리의 말이 묶여있고, 황금말뚝에는 호르마스트 천신 자신이 거하고 있다고 말한다.³⁹⁾ 이 이본은 후호데이 메르겐과 호르마스트 천신이 동일시되고, 그 역할이 중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 이본을 보면 북극성을 화살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북두칠성과 북극성 신화의 한 이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어느 나라에 공주가 살았는데, 그녀는 25살이 되도록 궁밖에는 나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향가리드⁴⁰⁾가 나타나 공주를 낚아채 가고 만다. 왕은 신하들에게 공주를 구해올 묘책을 묻자 점술가들이 8명의 아들이 있는 노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8명의 아들들은 각기 뛰어난 지혜와 술법을 가지고 있었는데,⁴¹⁾ 그들은 자신들의 기량과 힘을 모아 공주를 왕에게 데려다 준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자,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황금 화살을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 주실 건가요?” 하고 묻는다. 그러자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내가 하늘로 활을 쏘겠다. 서로 다투어 가서 먼저 이른 자식이 그것을 갖도록 하거라.”라고 말하고 하늘을 향해 활을 쏜다. 그러자 막내아들이 하늘로 올라가 황금 화살의 뒤를 쫓아가 화살을 붙잡는다. 그렇게 해서 막내는 북극성이 되고, 나머지 일곱 형제들은 북두칠성이 된다.⁴²⁾

이 신화에서 보면 활쏘기와 활을 갖는 것이 유업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막내가 활을 잡았다는 것은 일종의 말자(

) 상속의 유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위 이야기를 보면 화살을 쏜다는 것이 단순히 가정사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씨족 내지 부족을 가호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일종의 하늘의 혈통을 갖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⁴³⁾ 북극성이 활을 잡은 막내아들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것은

39) С.Дулам(2009), 앞의 책, pp.154~155.

40) 새의 왕, 인도의 태양의 새 가루다에서 온 것으로 중국식으로 봉황이라고도 함.

41) 각각 명궁수로 활을 잘 쏘고, 빨리 달리고, 먼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사물의 냄새를 맡아 알고, 바람을 빨아 삼키고, 호수와 바닷물을 한꺼번에 마시고, 태양과 달의 운행을 멈추게 하고, 보이지 않는 사물을 낚아 잡아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Д.Цэрэнсодном(1989), 앞의 책, p.66)

42) 위의 책, pp.65~66.

43) 부랴트의 에히리트, 블라가트 씨족 설화를 보면, 이들은 원래 하늘에서 지상에

후호데이 메르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막내아들은 가업을 이어 집안을 지키는 존재로 가정의 수호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호데이 메르겐은 조상신, 수호신으로 북극성에 좌정하여 몽골의 목민과 그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신화적 관념을 내포한다.

보통 탁월한 능력을 가진 7명의 (의)형제가 하늘에 올라가 북두칠성이 되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북두칠성을 ‘일곱 노인’ 혹은 ‘일곱 신’이라고 부른다. “몽골인들이 북두칠성을 ‘일곱 노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할 때 신화적 영웅 후호데이 메르겐의 두 마리 담황색 말을 지키고 있는 자가 일곱 노인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⁴⁴⁾ 이것은 북극성이 북두칠성의 중심을 이루며, 이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북극성과 북두칠성 신화는 몽골인의 삶과 신앙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말은 몽골 생활에서 가축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며, 말을 묶는 말뚝에 거하는 수호신 후호데이 메르겐은 몽골 목민들의 삶을 가호하는 수호신의 성격을 띤다. 후호데이 메르겐의 이러한 성격은 재난이나 사기()를 쫓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활과 화살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천둥 · 번개신

후호데이 메르겐은 또 천둥 · 번개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몽골 무속에서 후호데이는 천둥 번개를 지배하고, 지상의 악귀에게 벼락을 내려 없애는 마법적인 백방천신이다. 코딘 부랴트의 무가를 보면,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은 후호데이 메르겐 아버지와 홀테이 하탄 어머니가 9명의 아들, 9명의 딸과 검은 돌, 푸른 돌을 던지며 놀고 있는 것이라고 묘사한다.⁴⁵⁾ 그런데 블라가트-에히리트 부랴트의 기원신화에 하늘에서 수소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보호(수소)

내려온 보호 노온 바베의 아들들로, 수소의 자식들이다. 보호 노온이 수소로 변해 낳은 자식인데, 블라가트는 활을 잘 쏘아 사람들이 그 아이를 타그쉬 메르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부랴트 블라가트 씨족은 그로부터 비롯된다.(Д.Ванчиндорж, “Буриад – Монголчуудын угсаа-түүхийн зарим асуудал”, *Бүх ноён, Будан хата н ээжийн шүтээн*, УБ, 2000, pp.232~233) 몽골 자료를 통해 볼 때 고대에 활쏘는 능력은 지도자가 되는 필수 요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44) С.Дулам(2009), 앞의 책, p.148.

45) Д.Цэрэнсодном(1989), 앞의 책, pp.50~51.

노움’에게 보당 하탄 부인과 아홉 아들, 아홉 딸이 있다⁴⁶⁾고 언급하고 있어, 이들이 서로 유사한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불라가트-에히리트 부랴트에서 후호데이 메르겐은 사냥꾼을 가호하는 신들의 우두머리⁴⁷⁾”로 묘사된다. 천둥·번개신은 원래 천공신의 한 속성이었던 것이 점차 신이 전문화되면서 분화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지역마다 화살로 불을 일으키는 메르겐이나 불을 다루는 대장장이들이 이러한 신으로 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후호데이 메르겐 역시 천둥·번개신으로 신앙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의 후호데이 메르겐 가족이 던지는 돌은 일종의 ‘자드(зад)’라 할 수 있다. 이 돌은 “고대 신화론의 명사수 천둥·번개의 주인인 후호데이 메르겐의 화살로 묘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⁴⁸⁾ 자드는 무당이나 전문적인 자다치(자드를 부리는 자)에 의해 천기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했던 돌로, ‘하늘의 돌’, ‘신의 화살’ 등으로 불렸다. <아바이 게세르> 서사시에서 보면 벨리그테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지상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 한 히르마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비한 붉은 돌인 자드였다. 그는 그 돌이 적과의 전투에서 번개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⁴⁹⁾

돌을 화살과 등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불을 일으키고 천기에 관련되는 속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부랴트 신화에는 천둥·번개신을 명사수의 모습과 대응시켜 묘사한다.

후호데이 메르겐
 권능을 가진 큰무당
 향 호르마스트 천신의
 검은 무쇠 활을 가지신 분

46) Д.Ванчиндорж(2000), 앞의 책, p.235.

47) Урианхай, Тува, “Монгол туулийн баатруудын эх дүрийн тухай”, *Дөрвөд иргэдийн нийгмийн хөгжлийг дэмжих холбоо web site*, 2012.03.24.

48) С.Дулам(2009), 앞의 책, p.37.

49) 일리아N.미다손, 『바이칼의 게세르 신화』, 양민중 옮김, 솔, 2008, p.81.

삼만한 화살을 가지신 분

붉은 청동 화살촉을 가지신 분⁵⁰⁾

여기서 후호데이 메르겐은 천신의 무쇠 활을 가진 큰무당으로 묘사된다. 벨리그테가 아버지 한 히르마스의 자드를 갖듯 후호데이 메르겐은 항 호르마스트(한 히르마스와 동일 신)의 활과 화살을 갖는다. 이는 천상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의미이자 호르마스트 천신과 동격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활과 화살을 가진 후호데이 메르겐은 천상의 최고신인 천둥·번개의 신으로 천기를 지배하며, 세상의 부정한 것을 정화시키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된다.

신화에 등장하는 불화살이란 천둥·번개를 실체화한 형상이다. 오늘날까지 부랴트인들은 고대인의 청동 화살촉을 ‘후호데이 메르겐의 화살’이라고 불렀으며, 할하 사람들은 ‘하늘의 화살’, ‘천둥 화살’이라고 했다. 또 이것이 물과 불의 위협에 효험이 있다 하여 여자들이 가축의 젖을 담은 통에 매다는 풍습이 있어왔다.⁵¹⁾ 이것은 “천둥이 치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떨어져 보통 3년이 되어 발견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얻으면 ‘하늘의 화살촉’이라고 하여 길하게 여겼다.”⁵²⁾ 이렇게 몽골인들은 고대로부터 청동 화살촉을 하늘에 기원을 둔 것으로 여겼으며, 그 위력을 천둥·번개에 비유하거나, 반대로 천둥·번개를 청동 화살촉으로 관념하기도 했다.

부랴트 신화의 한 이본에는 후호데이 메르겐이 소에서 태어났다고 언급한다.⁵³⁾ 소는 천둥·번개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천둥·번개신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개 황소 내지 수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고대 그리스 로마뿐 아니라 아시리아, 소아시아 그밖에 많은 지역에서 천공신(텡그리)은 대개 황소의 형상으로 대표되었다. “황소와 번개는 일찍부터(기원전 2400년부터) 천공 및 기상신과 결합되어 있는 상징이었다. 고대문화에서 황소가 으르렁대는 소리는 천둥소리와 태풍에 비유되었다.”⁵⁴⁾ “황소는 천공신, 폭풍의 신, 태양

50) С.Дулам(1989), 앞의 책, p.112.

51) 위의 책, p.112.

52) Д.Дашбадрах(1997), 앞의 책, p.56.

53) 위의 책, p.111.

신과 연관되며, 황소의 울음소리는 벼락, 비, 풍요를 뜻한다.”⁵⁴⁾

몽골에서 전통적으로 신앙해 왔던 신령 가운데 하나인 보말(буумал) 신은 원래 호윙트(호윙크테)가 하늘의 수소를 훔쳐 고기를 먹고 그 뼈와 가죽으로 만들어 살린 신령이다. 보말은 수소의 모습으로 다니는데, 이 신을 섬기면 4 계절 가죽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복되게 잘 커 집안이 부유해진다고 한다.⁵⁶⁾ 처음에 보말 신이 생겨난 것은 항 호르마스트 천신의 검은 수소가 지상에 내려옴으로 많은 비가 내려 홍수가 일어나게 되자, 그 하늘의 수소를 호윙크테가 잡아서 제압했다는 것이다.⁵⁷⁾ 여기서 기상신인 수소의 주인은 항 호르마스트 천신이지만 동시에 수소는 항 호르마스트 천신 자신이기도 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후호데이 메르겐과 항 호르마스트 천신은 서로 그 역할이 다르기도 하고 또 같은 존재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천둥·번개신은 수소로 현현되며 비와 더불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겨졌다. 부랴트에서는 사슴을 하늘 동물, ‘보말 야생동물’(буумал ан)이라고 말한다.⁵⁸⁾ “보말은 천둥·번개신으로, 사슴이 천기와 관련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천기를 변화시키는 자딩촐로 가운데 사슴의 뱃속에 들어있던 돌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 이것 역시 천기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⁵⁹⁾ 앞에서 후호데이 메르겐이 화살을 쏘며 사슴을 쫓아가는 것이나, 자드를 던지며 천둥 번개를 일으키는 것 등은 서로 포괄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호리 부랴트 신화에 수소를 타고 다니며, 천둥·번개신이자 불을 일으키는 신으로 다르항 구지르 텅게르(Дархан Гүжир тэнгэр)라는 신이 있다. 이 신은 장인들을 가호하고, 몽골인들에게 장인의 기술을 가르쳤던 문화영웅이다.⁶⁰⁾ 다른 구지르 신을 묘사할 때 커다란 천둥소리를 내며 강철 외투에

54) 엘리야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7, p.157.

55) 진쿠퍼,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옮김, 까치, 2000, p.46.

56) Ч.Амаржаргал, *Монголын нүүдэл соёлын түүхэн мөрдлөгө*, УБ, 2006, p.227.

57) 위의 책, p.228.

58) С.Бадамхатан, *Монгол улсын угсаатны зүй III*, УБ, 1996, p.89.

59) 이안나(2010), 앞의 책, p.147.

60) С.Дулам(2009), p.306.

단단한 쇠 갑옷을 입고 흑갈색 영혼을 쳐부수는 모든 것의 시초인 강력한 구지르 텡게르의 땅의 중심에 좌정해 사막을 내리치고, 세 길의 은 뿔에 몸집이 삼십 길에 되는 짙은 붉은 수소를 타고 다니는 존재⁶¹⁾로 묘사된다. 수소는 다르항 구지르 텡게르의 탈것이지만 한편 구지르 텡게르 신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⁶²⁾ 또 다르항 구지르 텡게르를 99천신의 만형(ax зах)⁶³⁾이라고 한 것은 천둥·번개신의 최고 신격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천둥·번개신의 불을 일으키는 속성은 대장장이와도 일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다르항 구지르 텡게르와 후호데이 메르겐의 상관성을 보여준다.”⁶⁴⁾ 다시 말해, 대장장이가 불을 일으키는 것과 메르겐이 활을 쏘아 불을 일으키는 것이 천둥·번개가 치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호데이 메르겐의 천둥·번개신의 속성은 무쇠 활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부각된다.

몽골의 천둥·번개신은 무쇠 활을 발달한 부랴트와 호르친 종족에서 주로 언급되는데, 이들은 대개 수소와 관련을 가지며 대장장이, 활을 다루는 메르겐, 소 내지 소의 수호신 등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천둥·번개신이 여러 신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천둥·번개신이, 사악한 것과 부정적인 것을 소멸시키고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주는 성격을 가진 해당 종족의 신성과 결부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호데이 메르겐의 천둥·번개신의 직분은 고유의 역할이라기보다 불을 일으키는 명궁수의 특징으로 인해 전위된 형상으로 생각된다.

3. 창조신

후호데이 메르겐은 창조신의 형상으로도 나타난다. 몽골 창세신화에 주로 등장하는 불교의 보살인 오치르바니(Очирбани: 집금강보살)는 원래 몽골 신화상의 주인공 후호데이 메르겐인데, 불교가 몽골에 전파되면서 신화에 들어

61) 위의 책, p.113.

62) 고대 근동의 신 아슈르와 신 아다드는 황소를 타고 다니며 ‘하늘의 황소’라고도 부른다.(진쿠퍼(2000), 앞의 책, p.46) 일반적으로 천둥 번개신은 황소로 나타나며, 황소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된다.

63) С.Дулам(2009), p.113.

64) 이안나, 「몽골인의 ‘소 신앙’ 연구」, 『몽골학』 제27호, 2009, p.137.

은 이름이라 본다. 집금강보살이 쥐고 있는 금강저(Vajra)는 원래 번개와 비를 내리는 시바 신이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천둥번개’ 또는 ‘다이아몬드의 흙’이라고 불리는데,⁶⁵⁾ 이것은 천둥·번개신인 후호데이 메르겐의 화살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이러한 공통적인 속성으로 신이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오치르바니는 몽골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신앙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화에 차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학자 잠차라노(Жамцарано)는 탕가드의 아들 후호데이 메르겐이 하늘에 들려 올려져 오치르바니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⁶⁶⁾ 이것은 불교의 영향이 몽골 신화에 침투될 때 후호데이 메르겐을 오치르바니로 비정해 놓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몽골 창세신화의 할하⁶⁷⁾ 이본에는 오치르바니가 천상에 있었는데, 한번은 공기와 물밖에 없는 아래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차강 슈헤르트라는 동역자를 만나 물 가까이로 가자 바다 가운데 큰 거북이가 있는 것을 보고 활을 쏜다. 그리고 차강 슈헤르트에게 거북이를 뒤집어 놓게 하고 그에게 바다 밑에서 흙을 가져오게 하고, 자신은 거북이 위에 앉아 있다. 오치르바니는 차강 슈헤르트가 바다 속에서 가져온 흙을 거북이 위에 뿌리자 그 둘이 앉아있을 정도의 땅이 생겨난다.⁶⁸⁾

부랴트 신화의 이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백조와 까마귀가 세상을 만들 흙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며 각각 하늘과 물 아래로 날고 있을 때, 황금 거북이가 발가락에 흙덩이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본다. 새들은 후호데이 메르겐에게 와서 자신들이 본 사실을 고하자, 후호데이 메르겐이 그 거북이를 활로 쏘아,⁶⁹⁾ 그 쥐고 있던 흙으로 대지를 만든다.

위 신화를 통해 보면 후호데이 메르겐의 창조신적 성격도 활을 쏘는 능력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골의 창세신화에 모두 거북이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며, 후호데이 메르겐 내지 후호데이 메르겐으로 비정되는 오치르바니가 항상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후호데이 메르겐은 그의 활쏘는 능력으로

65) 진 쿠퍼(2000), 앞의 책, p.386.

66) С.Дулам(2009), 앞의 책, p.181.

67) 몽골의 중심을 이루는 종족.

68) Д.Цэрэнсодном(1989), 앞의 책, pp.40~41.

69) С.Дулам(1989), 앞의 책, p.131.

거북이 화소 내지 거북이를 쏘아 대지를 만드는 화소에 등장했던 신격으로 생각된다. 그의 창조신적 기능은 창세신화에 활쓰기가 중요한 화소로 작용하면서 부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인류의 구원자

부리아트 신화에는 후호데이 메르겐은 괴물의 위험으로부터 지상의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푸른 은 하늘’(천신)이 지상으로 내려 보낸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후호데이 메르겐은 원래 후호 몽군 텡게르(푸른 은 텡게르)의 아들이다. 텡게르가 그를 망가스(괴물)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 보냈다. 그때 망가스가 모든 생명체들을 잡아먹어 지상에는 오직 일곱 노인만이 살아 남아있었는데, 그들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울면서 간절하게 하늘에 간구했다. 에첵 말리앙 텡게르가 보낸 후호데이 메르겐의 도움으로 이 일곱 노인으로부터 오늘날의 인간이 생겨나고 번성하게 되었다고 한다.⁷⁰⁾

위에 언급된 ‘푸른 은 텡게르(천신)’는 부랴트, 오이라드에 신화에 보존되어 남아있는 몽골 신화상의 ‘영원한 하늘’을 이른다.⁷¹⁾ 몽골의 천공신이요 최고신인 ‘영원한 푸른 하늘’은 추상적인 신으로, 에첵 말리앙(에세게 말라안과 동일 신)⁷²⁾은 ‘영원한 푸른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구체적 신성이라 할 수 있다. 후호데이 메르겐은 에첵 말리앙 신의 명으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게 된다.

그런데 후호데이 메르겐이 지상의 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70) Д.Цэрэнсодном, 앞의 책, p.50.

71) 위의 책(1989), p.111.

72) 에세게 말라안 천신은 ‘영원한 푸른 하늘’의 장자로, 세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늘의 모습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천부 ‘영원한 푸른 하늘’과 다른 천신들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신성이다. 그는 한 히르마스(호르마스트) 천신을 포함해서 서쪽 진영에 사는 하늘신들의 아버지이다.(일리아N.미다순, 『바이칼의 게세르 신화』, 양민중 옮김, 솔, 2008, pp.44~45)

세상에 보내지는 화소는 몽골의 <게세르> 서사시 화소와 매우 유사하다. 부랴트 <아바이 게세르> 서사시에 등장하는 게세르는 원래 한 히르마스 천신의 둘째 아들 벨리그테인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상의 인간들을 위해 지상에 내려와 사악한 악령들을 퇴치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후호데이 메르겐 역시 인류 구원을 위해 지상에 내려온다.

이처럼 후호데이 메르겐은 인류 구원자의 면에서는 게세르와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보여준다. 후호데이 메르겐이 구원자로 내려오는 배경은 청동 무쇠 활을 가진 천둥·번개신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몽골 서사 문학에 등장하는 망가스(괴물)은 적대적 세력이라는 인간적인 모습과 함께 “자연의 파괴적인 힘은 은유화되어 나타난 존재”⁷³⁾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힘은 대개 주술적인 활쏘기로 해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III. 맺는말

몽골 신화상의 명궁수 메르겐은 주로 천체의 일월성신조정과 별의 생성 등에 관련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활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활쏘기는 수렵 생활을 하던 고대인들의 생활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냥뿐 아니라 생활 속의 재해를 해소하거나 악귀를 물리치고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의례의 하나로 행해졌다. 아주 먼 고대로부터 몽골인들은 활과 화살을 신비한 주력을 가진 신성한 도구로 신앙해 왔으며, 불을 일으키는 화살을 천상적인 힘으로 결부시킴으로써 메르겐은 민중들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신성으로 추앙되어 왔다.

몽골 신화에 등장하는 후호데이 메르겐은 무속신화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 신성이며, 기본적으로 명궁수이자 사냥꾼으로 천체 생성에 관여한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후호데이 메르겐에 관한 이야기는 사냥꾼 후호데이 메르겐이 사슴을 사냥하다 하늘에 올라가 시리우스별이 되고, 사냥하던 사슴은 오리온

73) 최원오, 「동북아신화에서의 ‘ , 또는 부정적 존재들’에 대한 비교신화학적 이해-부리야트 <게세르>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민학논총』 제54집, 2010, p.73.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몽골인들은 고대로부터 이 두 별이 자신들을 크게 가호한다고 믿어 왔으며, 특히 무속에서는 사슴토템과 몽골의 선조모라 할 수 있는 고아 마랄을 오리온자리와 관련해 신앙시해 왔다. 시리우스별을 몽골에서는 ‘후호데이 메르겐’ 또는 ‘늑대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몽골의 늑대 토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몽골인들은 천체와 인간의 삶을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천체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상의 영혼이 신(보르항)이 되거나 별이 되어 자신들을 가호한다고 믿었다. 탁월한 명궁수 지도자가 하늘에 올라가 별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믿음은 늑대, 사슴토템 신앙과 연결되고, 사슴별인 오리온자리와 함께 늑대로 비정되는 후호데이 메르겐 별인 시리우스를 자신들을 수호하는 별로 신앙함으로써, 후호데이 메르겐은 민중의 지배적인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통해 보면, 후호데이 메르겐의 여러 역할 가운데 별 생성 및 조상신 관념이 가장 중심을 이루며, 그밖에 여러 형상들은 후호데이 메르겐의 활쏘기 능력과 그의 수호신적 성격에서 기인한 기능들로 생각된다.

후호데이 메르겐은 활쏘기에 자만하여 과도한 사냥, 해서는 안 되는 사냥을 함으로써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의 하늘의 시험을 받는데, 이것은 자연의 과도한 힘으로 의인화된 후호데이 메르겐의 힘이 제어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로부터 몽골인들은 북극성을 생활이나 여행길의 방향자로 여겨왔으며, 북두칠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존송해왔다. 몽골 신화에서 북극성을 ‘황금 말뚝’이라 부르고, 그것을 후호데이 메르겐의 말을 묶는 말뚝이라고 하는데, 신화적으로 보면 그 말뚝은 후호데이 메르겐의 처소의 의미가 있다. 몽골인들은 말 묶는 기둥에 조상신이 거하여, 가축을 번성케 하고 후손들을 가호한다고 믿었다. 북극성의 주인은 호르마스트 천신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후호데이 메르겐이 북극성의 주인으로 자리하는 것은 민중을 가호하는 수호신적 위상이 북극성으로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후호데이 메르겐은 천기를 조절하는 하늘의 돌인 자드(зaд)를 부리는 자요,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천둥·번개신으로 나타난다. 후호데이 메르겐

의 돌과 활은 모두 천둥과 벼락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의 돌인 자드는 ‘신의 화살’, ‘후호데이 메르겐의 화살’로 묘사되며, 또 청동 화살촉을 ‘후호데이 메르겐의 화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드와 화살과 천둥·번개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적이나 사귀를 물리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속성을 갖는다. 천둥·번개신들은 대개 수소를 타고 다니며, 수소의 모습으로 다니는 것으로 묘사된다. 천둥·번개신으로 신앙되는 후호데이 메르겐, 보말 탕게르, 대장장이 구지르 탕게르는 모두 수소와 관련되는데, 고대문화에서 수소의 으르렁거림은 천둥소리와 태풍에 비유되었다. 또 대장장이가 불을 일으키는 것과 명궁수가 활을 쏘아 불을 일으키는 것 등은 모두 천둥·번개의 한 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둘이 등가적으로 관념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천둥·번개신은 원래 천공신의 한 속성이었던 것이 점차 신들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분화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불을 일으키는 메르겐이나 불을 다루는 대장장이들이 여러 지역에서 각각 천둥·번개신격으로 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후호데이 메르겐 역시 천둥·번개신으로 신앙시된 것으로 보인다.

몽골 신화상의 창조신 오치르바니(집금강보살)는 원래 후호데이 메르겐이며, 그의 창조신적 성격은 활쏘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창세신화에서 그는 거북이를 쏘아 거북이가 쥐고 있던 흙을 뿌려 대지를 만든다. 후호데이 메르겐은 모든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활쏘기 화소에 등장하는 신격으로, 창조신격은 그의 주기능이라기보다 활쏘기에 의한 보조기능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호데이 메르겐은 ‘영원한 은(푸른) 하늘’의 아들로 망가스(괴물)가 세상의 생명들을 모두 해쳐 세상에 인간들이 살 수 없게 되자 인간을 구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구원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몽골 서사문학상의 망가스는 자연의 파괴적인 힘 내지 적대적 세력을 의미하는데, 활쏘기는 이러한 부정적인 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주술적 행위였다. 인류를 구원하는 후호데이 메르겐의 모습은 <계세르> 서사시의 계세르 형상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인류의 구원자는 후호데이 메르겐의 주된 기능이라기보다 그의 활쏘기 능력에서 확대된 기능으로 보인다.

후호데이 메르겐은 몽골인의 삶의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목민들의 삶을 가호하는 조상신 내지 수호신적 성격을 띠면서 몽골 신화상의 중요한 신격으로 전승되어 내려왔다. 후호데이 메르겐의 주 기능은 활을 쓰는 명궁수로서 원래 일월성신조정 및 별의 생성, 토렘신앙, 조상신 등에 관여되다가 그의 수호신적 성격과 활 내지 활쏘기의 주술적 상징성이 전위되면서 그의 역할이 다양하게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선자, 「중국 소수민족 활쏘기 신화와 의례를 통해서 본 ‘샤먼영웅’」, 『동북아 활쏘기 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10.
- 곽진석, 『시베리아 만주-통구스족 신화』, 제이앤씨, 2009.
- 노스립 프라이, 『비평의 해부』, 임철규 옮김, 한길사, 2009.
- 니콜라스 J. 손더스, 『동물의 영혼』, 강미경 옮김, 창해, 2002.
- 서대석,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7.
- 이안나, 「몽골인의 ‘소 신앙’ 연구」, 『몽골학』 제27호, 2009.
- 이안나, 『몽골 민간신앙 연구』, 한국문화사, 2010.
- 일리아 N.미다손, 『바이칼의 게세르 신화』, 양민중 옮김, 숲, 2008.
-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옮김, 한길사, 1997.
- 이평래, 「‘에르히 메르겐’ 신화의 문화적 함의」, 『동북아 활쏘기 신화의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 진쿠퍼,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옮김, 까치, 2000.
- 최원오, 「동북아신화에서의 ‘ , 또는 부정적 존재들’에 대한 비교신화학적 이해-부리아 트 <게세르>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논총』 제54집, 2010.
- Ч.Амаржаргал, *Монголын нүүдэл соёлын түүхэн мөрдлөгө*, УБ, 2006.
- Д.Ванчиндорж, “Бух ноён, Будан хатан ээжийн шүтээн”, *Буриад-Монголчуудын угсаа-түүхийн зарим асуудал*, УБ, 2000.
- С.Бадамхаган, *Монгол улсын угсаатны зүй III*, УБ, 1996.
- Ш.Бира бусад, *Монголын нууц товчоо*, УБ, 2005.
- М.Ганболд, *Алтайн урианхайн сурын харваа*, Ховд, 2006.
- М.Ганболд, *Алтайн урианхайн уламжлалт шүтлэг*, УБ, 2001.
- Д.Дашбадрах, “Монголчуудын нум сум эрхэмлэх ёс”, *Угсаатан судлал*, УБ, 1997.
- С.Дулам, *Монгол домог зүйн дүр*, УБ, 1989.
- С.Дулам, *Монгол домог зүйн дүр*, УБ, 2009.
- Б.Катуу, Э.Пүрэвжав, *Захчин ардын аман зохиол*, УБ, 2004.
- А.Очир, “Монголчуудын нохос, чонос, бухас, шарайгол хэмээх овгуудын тухай”, *Сибирь болон монголын ард түмний угсаатны зүй*, УБ, 2000.
- О.Пүрэв, *Монгол бөөгийн шашин*, УБ, 1999.
- О.Пүрэв, *Монгол бөөгийн шашны нэр томъёоны тайлбар толь*, УБ, 2003.
- Ж.Санжид, *Гаднаас гал гуйдаггүй*, УБ, 1998.

212 비교문화연구 제35집 (2014. 6.)

Д.Цэрэнсодном, *Монгол ардын домог үлгэр*, УБ, 1989.

Д.Цэрэнсодном, “Монгол домог туулийн гарал үүслийн асуудалд”, *Аман зохиол судлал* 14, УБ, 1987

Урианхай, Тува, “Монгол туулийн баатруудын эх дүрийн тухай”, Дөрвөд иргэдийн нийгмийн хөгжлийг дэмжих холбоо site, 2012.03.24.

❖ ABSTRACT

A Study on the Forms and Character of Huhdai Mergen in Mongolian Mythology through the archery

Lee An-na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forms of master archer *Huhdai Mergen* from Mongolian mythology and his character through archery. In Mongolian mythology, master archer *Huhdai Mergen* is usually connected to the regulation of the sun, the moon, and the stars in Heaven and the creation of stars. Such a series of acts are conducted through archery, which used to be performed as an incantatory ritual to resolve a disaster in life, dispel an evil spirit, and pray for affluence as well as for hunting.

In Mongolian mythology, *Huhdai Mergen* is a master archer and hunter that rises to Heaven while hunting a deer and becomes Sirius with the deer becoming Orion. The Mongolian have believed that the two constellations protect them since ancient times. While Orion is related to the deer totem, Huhdai Mergen or Sirius is related to the wolf totem faith.

Huhdai Mergen takes too much pride in his archery skills and ends up causing damage to himself,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pattern of controlling the power of personified *Huhdai Mergen* through excessive natural force. He also has something to do with Polaris, which is regarded as the stake to bind his horse to by the Mongolian. They also believe that their ancestral gods reside in the horse stake or column. The stake is the residence of *Huhdai Mergen* protecting the Mongolian people, which reflects his aspect as an ancestral god.

He is also depicted as the god of thunder and lightning born in a cow. The stones he throws and the arrows he shoots in Heaven are the embodiments of thunder and lightning. The Mongolian have understood lightning of dispelling an evil spirit and striking wicked things as the arrow of *Huhdai Mergen*. The god of thunder and lightning has the attributes of a fertility god such as eliminating bad devils and bringing affluence. *Huhdai Mergen* is also manifested as the creator to create the earth and the savior to save mankind. Such forms all derive from his archery skills.

Key Words

후호데이 메르겐, 사냥꾼, 명궁수, 천둥·번개신, 조상신

Huhdai Mergen, hunter, master archer, god of thunder and lightning, ancestral god

논문접수일: 2014. 05. 10

심사완료일: 2014. 06. 09

게재확정일: 2014. 06. 13